번뇌망상 끊으려 말고 그냥 놓아라

☞ 19면에서 계속

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장하다 어떤 게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지 귀중하다고 하는 말을 항상 해드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 마음 이 자체가 그대로, 이 세상 돌아가는 데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 마디, 생각 한 번, 행동 한 번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선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자체가 아주 간단하지만, 말은 간단하지만 행은 간단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아주 단호히,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 행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 오신통도 놓아야 하는지

문 스님께서는 왜 오신통도 놓아야 한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오신통을 했다 하더라도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신통을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신통을 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해탈을 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해탈을 구하려고 아니 해도, 부처를 구하려고 아니 해도 저절로 구해집니다. 욕심이 앞서면 바로 눈이 캄캄해집니다. 욕심이 앞서면 문을 찾아서 나고 들어야 하고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진짜 사랑 아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문 아닌 문이 있으니, 전체가 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뿌리에다 놓고 관하라고 했습니다. 뿌리에다 놓고 관하되, 함이 없이 하는 관이 만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한 군데서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을 관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 아는 것도 놓으라고 했거든요. 즉 말하자면,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게 있잖아요? 또, 남이 어떻게 오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 하는 그런 것, 잘될 건가 못될 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이런 걸 아는 것이 숙명통입니다. 그것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신통력을 다 놓아야 그 신통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오신통에서 벗어나면 그냥 오신력이 됩니다. 그냥 무심으로써 되는 거죠. 그럼 무심을 놓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통 털어서, 사생에 대해서 이 모든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놨을 때는 오신통에서도 벗어나는데, 거기에서도 놔서 벗어나는데 그 무심에서도 또 놔야 되거든요. 그 무심조차도 놔야하는 것에서 사무 사유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한데 합쳐보면 저런 별성이라든지 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이 그냥 전부 나오는 겁니다, 전부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를 하고 있고, 뭐가 되어 있고, 뭐가 어떡하고 있고 이런 게 전부 법망으로 인해서 그냥 쫙 통신이 오는 거죠. 이 통신이 오고 하는 것도 요렇게 거울을 갖다 놓고 보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것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놓는 게 세 가지입니다. 계단 없는 세 계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방대하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그것도 놓는 겁니다, 무심에다 놓는 거죠. 그거를 놓지 않으면, 그 모두를 속속들이 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가다가 중지해 버리는 게 되고, 잘못하면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부분을 알고 아, 이거 족하다 이러고 놓지 않는다면,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먹을 수 있지, 딴 데서는 그 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딴 세계 대통령이 됐어도 그것도 마저 놔라 이겁니다. 그건 왜? 우주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우주 대통령마저도 놔야 그게 고정됨이 없이 전부 삼천대천세계로 이른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신통력에 매이면 그건 신통을 못하고, 아무리 구름을 타고 날고 제 아무리 신통력을 부린다 해도 그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놓는다는 이 방법이 무척 무서운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놓는다는 게 첫번으로 아주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그저 부처가 됐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나는 이렇게 잘한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여기에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되지, 생활을 이만하면 해가지' 하는 그런 머무름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둔다면 그 한계 지워진 그릇에서 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통하게도 신통력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겁니다. 신통력을 가지고 신통하게 해 나가시는 분도 신통하고, 또 신통하게 해 나간다고 보는 사람도 신통하고, 그러니 두 신통은 바로 신통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가까워서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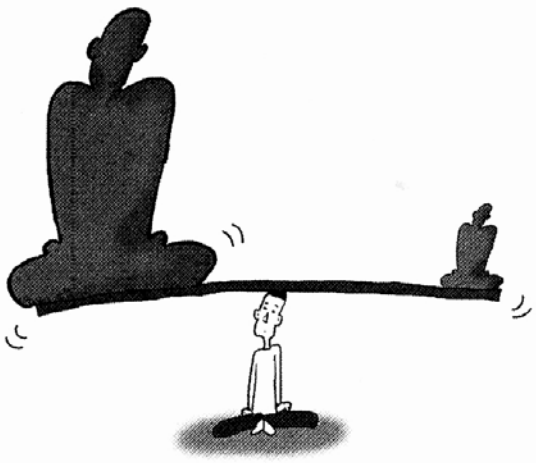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삼계속에서 몸 · 마음 안 움직여야 좌선

자불에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 살라

주인공은 의지와 다릅니까

문 주인공에 관한 글을 읽어도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내 모습을 보니 스님께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꾸만 글을 읽다보면 '이건 자신의 의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될 때는 종종 내 자신에게 최면 같은 거라 할 수 있는 의지상태로 밀고 나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별거 아니야, 분명히 된다" 하는 식으로 입력을 계속하는 거죠. 스님! 이 주인공 공부는 그런 나의 의지하고는 완연히 다른 것 같은데요? 가르침 바랍니다.

답 털구멍 하나가 만약에 자불이라면 모든 걸, 이 세상을 다 넣어도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털구멍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하서, 그저 생기면 여기다 넣고 생기면 여기다 넣는다면 불을 게 없고 집착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 멸도 없고 생사도 없고 다 없는 거죠.

그냥 모두 한 털구멍에 다 넣어버리는 거와 같이 바로 자기 자불에, 자불이 주인공이니까 그냥 주인공에 다 놔버리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암에 걸렸다고 의사들이 그런다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모두들. 바깥으로 끄달리는 거죠, 그게. 의사한테 그냥 100%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사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반은 분담을 해서 의사 반, 나의 마음 반이 돼야 됩니다. 자기 뿌리만이 자기 싹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의사도 그 자부처의 인연으로 만난 거니까 다른 손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거는 그냥 '주인공은 뭐 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름 불러도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색경을 보면 자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색경을 보지 않고 자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못 믿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自神)'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자신! 자신이 쭉 형성돼서 나올 때까지, 우리가 삼신할머니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그렇게 삼신할머니라고 붙였으니까 그렇지 자불이에요. 자불이 그렇게 길러서 어느 때까지, 백일 때까지 그 과정을 모르게 딱 정돈해 놓고는 그때서부터는 바깥에 있는 모든 거를 배우게끔 만들죠. 만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수없이 그렇게 겪어오면서 그 자불(自佛)이 자기를 형성시키고 또 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간까지 올려놓았는데도 이제 와서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친근하게 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주 자기의 근본, 자불이죠. 자불! 그 자불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송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의 나무는 당신의 뿌리를 믿고 '너 뿌리만이 에너지를 줄 수 있어. 뿌리만이 가지와 잎새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어.' 하고선 모든 걸 거기다가 던져놓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출가 않고도 선방갈 수 있나요

문 스님 법문은 불교TV나 컴퓨터 영상법문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마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스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에 진한 존경심과 함께 정진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생깁니다. 저는 저녁에 회사를 마치고 참선 방에 가서 하루 두 시간씩 공부를 하고 가족들과 같이 집에 옵니다. 선방에서 공부한 지는 5년 정도 되어도 크게 나아감이 없어서 요즘은 출가를 해서 오직 화두에만 전념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나 제가 장남이고, 그리고 출가를 해도 행자 생활 등 5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선방에 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사회 생활을 하지 않고 공부를 5년 동안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선을 해서 그런지 속가에서 사는 현실이 너무 무의미하고 누구와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저와 여동생은 선을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 스님, 제 소원이라면 우리 부모님을 제가 직접 천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출가를 하지 않고도 선방에는 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 현명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답 우주 천지의 근본은 인간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고 세상사는 인간의 마음에 가설되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도 종교도 사랑도 미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데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신부터 믿고 일체를 맡겨 놓고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제자나 유발 제자들을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이자 방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부처님과 유마힐거사가 몸과 이름은 각각이지만 오고 가는 사이도 없이 마음은 한마음, 바로 한 주장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병이 나게 해서 보살들을 보내게 했던 것도 공부를 시키기 위한 방편이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유마힐 거사의 병문안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사리불은 유마힐 거사의 병 문안 가는데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를, "제가 숲 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유마힐이 찾아와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도 온갖 행동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안에도 바깥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좌선하는 이라야만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병 문안을 가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사는 것이 고정되지 않으니 안에도 바깥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경을 읽어보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그대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아마 뜻으로는 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니라 했는데, 가만히 보면 번뇌망상을 끊어야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끄달려 돌아가니, 망상을 끊겠다고 애를 쓰는 자체가 또한 망상인데 그게 어디 끊어지겠습니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마음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묶여진 게 없습니다. 나쁘고 좋은 것 모두를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한 고로 끊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만이 오직 좌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곧 해탈 길로 들어가며 열반에 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좌선하는 이라야만이 부처님이 인가하실 것이다라고 유마힐 거사가 말을 하였다면서 병문안 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그러니 계율을 지킨다 범한다는 말 없이도, 내가 참선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는 구분이 없이 한 발짝도 헛되게 떼 놓지 않고, 말 한마디 헛되게 떨어뜨리지 않고, 한생각도 평등한 마음 아님 없는 그러한 행을 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도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9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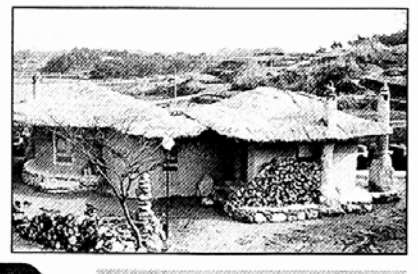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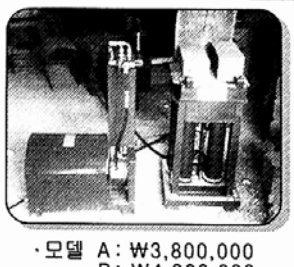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1년 6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01년 6월 11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순 구리로 만든 행운의 동(銅) 달마도

귀의 삼보하옵니다.
성주조형예술원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행운의 동 달마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장기간에 걸려 개발한 연구작품입니다. 예로부터 달마도는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액자 전면을 동으로 처리하여 만든 '행운의 동(銅) 달마도'는 나쁜 기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가정 및 사무실에 걸어 놓으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 재질 100% 구리
▷ 크기 가로 550cm × 세로 880cm
▷ 가격 120,000원
가격 30,000원 ◁
재질 100% 구리 ◁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 중! 가로 275cm × 세로 400cm ◁
성주조형예술원 031-311-3389 017-232-2858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123-1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